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의 일' 마당에서 열린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3부 요인과 각 당 대표들이 추모의 나비를 날리고 있다. 순결과 환생을 상징하는 2천7마리의 하얀 나비는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에서 보낸 것이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오늘 결론

임기말 국정 중대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 전례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중 연설 녹취록,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등 자료준비를 끝내고 전례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례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에서 지적하여 보인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적 해방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진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 데 이성적인 속고를 촉구한다. 노 대통령도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법리적 논쟁이 확산할 공산도 크다.

반대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선정국의 쟁점이 선거법 위반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함평 '나비효과'

현충원에서 뉘 달래고
 울산서 영호남 잇고

나비축제를 통해 명성을 얻은 함평 나비가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해 활황 날고 있다.

6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2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함평군이 기증한 나비 2천7마리가 날아 올라 눈길을 끌었다.

또 3년전부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마다 5천 180마리의 함평나비를 날려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달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제공돼 동심을 즐겁게 해준 적도 있었다.

함평나비는 영호남 주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울산 공존생태관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함평나비가 울산으로 시집가기도 했다.

함평 나비가 울산으로 간 것은 울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내 곤충생태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함평군에 축하 나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함평군이 이에 응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정쟁 휘말리지 말고 지역 챙겨라”

F1·서남권 특별법 6월국회 처리 불투명

道·정치권 공조...한나라 지지 끌어내야

범여권의 이합집산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지역 중요 현안추진을 뒷받침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F1특별법)과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 특별법)이 지난 4월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범여권의 통합추진과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 등 정치 이슈에 밀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전남도와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은 물론,

올해 대선에서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 '호남구애' 전략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까지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해 반당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F1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기장 건설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F1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 대기중인 다른 법안들에 비해 상정 순위에 한참 뒤쳐져 있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는 상정 순위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1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광위는 한미 FTA 청문회 등을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상황인데다 F1특별법이 문광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를 거

쳐야 하는 등 빠박한 일정이 예고돼 있다.

더욱이 F1 특별법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공성 제고 및 조직체제를 바꾸려는 수정안 제출이 요구된 상태로 민노당 천영세 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안 통과에 반대할 경우 논란이 확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14일께 견교위에 상정될 예정인 서남권 특별법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 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서 특히 시비가 일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영

남 등 일부지역 의원들은 서남권 특별법 발의단계부터 '호남표'를 의식한 정부의 특혜 주장을 제기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F1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전남도와 지역출신 정치인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한나라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F1특별법 등 지역현안을 지원할 법안 통과와 관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 車연료비 7.8% 급등

물가상승률의 4배...교통비도 치솟아

올해 들어 치솟는 기름값으로 가계의 자동차 연료비와 교통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7.8% 급등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1.9%)의 4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11면> 자동차 연료비 인상폭을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8.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자동차용 LPG(액화천연가스)가 7.8%, 경유가 4.9% 각각 올랐다.

교통비 관련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철요금 10.9%가 올랐고 시내버스요금 역시 8.3%가 상승해 소비자물가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에서도 지

난해 말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이 800원에서 950원으로 20%가량 올랐으며, 지하철 요금은 12.5% 인상됐다. 또한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임도 평균 10.9% 올라 교통비 부담이 늘었다.

이처럼 차량 연료비와 교통비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버스·전철·택시 등 공공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6만3천10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52원)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차량 연료비를 포함한 개인교통비 지출은 같은 기간 월 평균 17만4천400원에서 22만3천99원으로 무려 27.9% 증가했다. /최희준기자 chae@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270-0114 ▶ T.062-2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 360-5000

CATS
 '캣츠' 티켓 발매중!!
 2007.9.7-16 / 광주문화회관
 문의: (062) 220-0541 / 1538-0766

이아영의 멜라닌 지수 **127**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펜 화이트젠 RXC 인텐티브 에센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꿔주는 딥웨이팅이 중요하다.

멜라닌 요오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젠RXC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펜이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젠RXC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있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환한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착색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Melanin Index)란?
 맥시미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자가 끝낸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펜 피부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젠 프로젝트 확인하세요. www.iope.co.kr